

2025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설문조사 보고서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전진경

책임연구원 김영환

연구원
김정아
이소현
조소연
박종두
박아름

자문 김성호

동물권행동 카라는 바람직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형성을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케어테이커(이하 '케어테이커')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돌봄 현황과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케어테이커는 평균 53.8세이고, 여성이 95.1%, 남성이 4.9%였다. 또한 평균 6.47곳의 길고양이 밥자리를 관리하며, 이곳에 주 7.5회 방문하여 18.3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었고, 길고양이 돌봄에 월수입의 21.8%를 지출하고 있었다. 케어테이커의 73% 이상은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주로 활동한다고 응답했고,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벽 돌봄을 한다고 응답한 케어테이커도 17%에 달했다. 케어테이커의 98.4%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돌봄 활동은 사료와 물 제공이었고, 그 외에도 60% 이상이 주변 청소, 구청 TNR 신청, 직접 TNR 참여, 부상이나 질병 치료도 병행하고 있었다.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케어테이커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길고양이 돌봄은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동물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94.5%는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동물보호가 국가의 법적 의무이고(36.6%), 길고양이에게 안전한 사회가 사람에게도 안전하기 때문(3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얼마나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케어테이커는 10점 만점에 평균 3.83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표준편차는 1.68이었다.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중복 허용 응답에서 '동물학대법'을 선택한 케어테이커는 62.6%, 질병과 부상을 선택한 이들은 34.6%, 안전하게 쉴 공간의 부족을 선택한 이들은 33.5%였다.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요소에 대한 응답에서(중복 허용) 케어테이커의 51.1%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혐오자 감소가, 44.0%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캠페인과 노력이, 39.6%는 길고양이 관련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과 위협(51.1%)으로 응답되었으며, 경제적 부담의 경우 '1인 가구'(29.2%)와 '3세대 가구 및 기타'(2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길고양이 돌봄 방식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면,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하여 52.7%의 케어테이커가 동의하고 있었으며, 관리하는 밥자리가 많을수록 일시적 급여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 시설과 같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57.1%가 동의, 42.9%가 반대하고 있었는데, 활동 기간이 오래될수록 응답이 '매우 동의'와 '매우 반대'로 갈리는 양상을 보여, 이와 관련하여서는 케어테이커 내의 사회적 논의나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길고양이 사고와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케어테이커의 75.9%가 동의하여 일시적 급여나 어린이시설 주변 기피 급여에 비하여 높은 동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길고양이의 안전 문제가 케어테이커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중복 허용 질문에, 케어테이커들의 73.6%는 청결을 강조했으며, 61.5%가 TNR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함을 피력했다. 이와 상응하여,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으로 가장 많이 응답된 것은 청결을 위한 돌봄(35.7%), TNR(15.4%)이었으며, 이어서 주민 소통 및 갈등 관리(14.3%), 급식 관리(12.1%), 인식 개선 활동(8.2%), 구조 및 치료(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인식 개선과 홍보(45.0%)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시설과 인프라(28.0%), 법제도 강화(15.4%), 의료지원 확대(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끝으로,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급식소 관리와 청결(42.8%)과 TNR(20.3%)로 응답되었고, 이어서 급식소 설치와 운영(15.4%), 주민 소통(12.6%), 의료적 지원(7.1%)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케어테이커들이 동물보호가 공적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물학대와 혐오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돌봄 방식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 청결과 TNR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조사는 서울시의 길고양이 정책 목표와 방법을 설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목 차 례

01	설문조사의 배경	01
02	설문조사 결과	02
01.	연구대상자의 특성	02
	- 케어테이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03
	- 표본 특성에 대한 주의 사항	03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특성	05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	05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05
02.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인식	07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10
	-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12
	-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12
	-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13
	-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복응답	16
	-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응답	19
	-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	21
03.	길고양이 돌봄 방식에 관한 의견	21
	-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23
	-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25
	-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28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케어테이커의 활동	29
	-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	30
	-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31
	-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32
03	2022년 길고양이 돌봄 설문조사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	32
04	주요 결과에 대한 함의	33

05 정책 제언	- 제도적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 - 책임 있는 돌봄 문화 조성 - 정책 정착을 위한 참여 기반 마련 - 지역사회 협력 기반 구축 - 실태조사 및 정책 평가 체계 마련 -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접근	34
06 본 설문조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 설문지 설계와 문항 구성 - 인식 질문의 구조적 한계	35
부록		36

표 차례

- 설문조사 개요 「표1」	02
- 설문조사 진행 일정 「표2」	02
- 케어테이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3」	03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특성 「표4」	03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 「표5」 중복응답	05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표6」 중복응답	06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표7」	06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표8」	08
-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과 케어테이커 간의 인식 비교 「표9」	08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표10」	09
-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표11」	10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표12」	10
-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표13」	12
-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표14」	12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 차이분석 「표15」	13
-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표16」 중복응답	14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표17」 중복응답	14
-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표18」 중복응답	16
-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서울시 시민과 케어테이커의 인식 비교 「표19」	17
-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표20」 중복응답	18
-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 「표21」	19
-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표22」	20
-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표23」	22
-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 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표24」	22
-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 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표25」	24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표26」	24
-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 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표27」	26
-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 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표28」	26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표29」 중복응답	28
-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 「표30」	
-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표31」	29
-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표32」	30

그림 차례

- 케어테이커의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그림1」	02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 「그림2」	05
-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그림3」	05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그림4」	07
-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림5」	10
-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림6」	12
-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그림7」 중복응답	13
-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 응답 「그림8」 중복응답	16
-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서울시 시민과 케어테이커의 인식 비교 「그림9」	17
-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그림10」	19
-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림11」	21
-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림12」	23
-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림13」	25
-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그림14」	28
-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 「그림15」	29
-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림16」	30
-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그림17」	31

서울시는 도시 생태계의 일원인 길고양이와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동물임을 명확히 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중성화수술 등을 포함한 책임 있는 돌봄 활동의 필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 왔다.

‘케어테이커(caretaker)’는 지역 내 길고양이에게 자발적으로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고, 중성화수술(TNR) 등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는 시민 자원봉사자를 일컫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캣맘’, ‘캣대디’로도 불리지만, 이들의 활동이 단순한 개인 관심을 넘어 지역사회와 동물복지에 기여하는 실질적 봉사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케어테이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관련 정책 대응은 1990년대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살처분 대상이던 시기를 지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와 주민 주도로 중성화 수술 후 방사(Trap-Neuter-Return, 이하 TNR)라는 인도적 관리 방식이 도입되면서 본격화되었다.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Trap)한 뒤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행하고, 원래 장소에 방사(Return)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TNR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케어테이커들이 자발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도 정부 예산을 활용해 TNR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길고양이를 통제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에는 TNR 자체보다는 돌봄 방식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초창기에는 울음소리나 쓰레기 훼손 등 생활 불편을 둘러싼 민원이 중심이었으나, 이후 급식소 설치, 돌봄 장소, 방식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었고, 케어테이커에 대한 혐오 표현과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 야생조류 보호 등 생태계 이슈와도 연결되면서 논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케어테이커들 사이에서도 돌봄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내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케어테이커의 활동 실태, 인식, 갈등 경험 등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는 서울시 내 길고양이 돌봄 활동의 실제 운영 실태와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책임 있는 돌봄 문화 조성, 사회적 갈등 완화, 그리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서울시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정책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존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1 설문조사의 배경

연구 배경

연구 설계

동물권행동 카라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는 길고양이 케어테이커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돌봄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4년 5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길고양이 전문가와 함께 설문조사안을 확정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의 협조를 통해 지역 내 케어테이커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응답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의 개요와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 제목	서울시 길고양이 돌봄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
조사 목적	서울시 케어테이커를 대상으로 길고양이 돌봄 현황과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조사 지역	서울시 25개 자치구
조사 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0월 15일
조사 방법	서면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표본 수	총 182건
조사 기관	서울특별시, 동물권행동 카라

『표1』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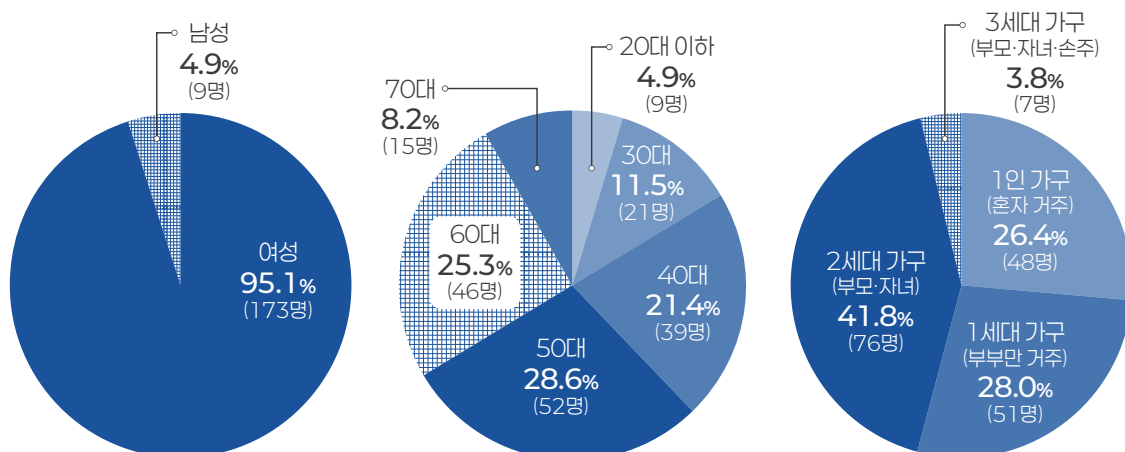
권역	응답자 거주지역	설문조사 장소	설문조사일
1	금천·영등포·관악·동작	금천구청	6월 3일
2	종로·중구·용산·성동	용산구청	6월 24일
3	동대문·중랑·성북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7월 3일
4	강북·도봉·노원·광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7월 24일
5	은평·서대문·마포	은평구청	8월 28일
6	양천·강서·구로	강서구청	9월 27일
7	서초·강남·송파·강동	강남구청	10월 15일

『표2』 설문조사 진행 일정

02 설문조사 결과

0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케어테이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림 1』 케어테이커의 성별·연령대·가구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여성	173	95.1
	남성	9	4.9
연령대	20대 이하	9	4.9
	30대	21	11.5
	40대	39	21.4
	50대	52	28.6
	60대	46	25.3
	70대 이상	15	8.2
가구형태	1인 가구(혼자 거주)	48	26.4
	1세대 가구(부부만 거주)	51	28.0
	2세대 가구(부모·자녀 거주)	76	41.8
	3세대 가구(부모·자녀·손주 거주) 및 기타	7	3.8

『표3』 케어테이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82)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이하 ‘케어테이커’)의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빈도분석 결과, 성별은 여성이 95.1%(173명)로 남성 4.9%(9명)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연령대는 50대가 28.6%(5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60대 25.3%(46명), 40대 21.4%(39명), 30대 11.5%(21명), 70대 이상 8.2%(15명), 20대 이하 4.9%(9명) 순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2.81세였다. 가구형태는 2세대 가구(부모·자녀 거주)가 41.8%(7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세대 가구(부부만 거주) 28.0%(51명), 1인 가구(혼자 거주) 26.4%(48명), 3세대 가구(부모·자녀·손주 거주) 및 기타 3.8%(7명) 순이었다.

2) 표본 특성에 대한 주의 사항

본 조사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한 강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상당수가 간담회 참석자 등 활동성이 높은 케어테이커로 구성되어 있어, 돌봄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이 4.9%로 낮아 성별 간 비교를 통한 통계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표본 특성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해석해야 하며, 향후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길고양이 돌봄 한달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83	45.6
	월 수입의 11%~30%	59	32.4
	월 수입의 31%~50	24	13.2
	월 수입의 50% 초과	14	7.7
	외부자원으로 진행	2	1.1
길고양이 돌봄 경력	3년 이하	40	22.0
	4~7년 이하	42	23.1
	8~10년 이하	54	29.7
	11년 이상	46	25.3

구분		빈도	백분율
돌보는 길고양이 대략적인마릿수	5마리 이하	35	19.2
	6~10마리	67	36.8
	11~20마리	39	21.4
	21마리 이상	41	22.5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개수	1~2곳	56	30.8
	3~5곳	56	30.8
	6~9곳	27	14.8
	10곳 이상	43	23.6
일주일에 1개 밥자리를 방문 관리하는 횟수	1~3회	29	15.9
	4~6회	24	13.2
	7~9회	98	53.8
	10회 이상	31	17.0

『표4』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특성 (n=182)

케어테이커는 평균 6.47곳의 길고양이 밥자리를 주 7.5회 방문하여 관리하면서 18.3마리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다.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고양이 돌봄 한달 지출 비용**은 월 수입의 10% 미만이 45.6%(83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1%~30% 32.4%(59명), 31%~50% 13.2%(24명), 50% 초과 7.7%(14명), 외부자원으로 진행 1.1%(2명)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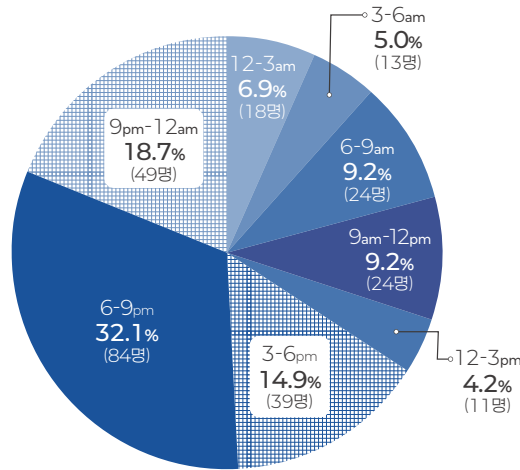
길고양이 돌봄 경력은 평균 8.2년으로 응답되었는데,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8~10년 이하가 29.7%(5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1년 이상 25.3%(46명), 4~7년 이하 23.1%(42명), 3년 이하 22.0%(40명) 순이었다.

돌보는 길고양이 대략적인 마릿수는 6~10마리가 36.8%(67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1마리 이상 22.5%(41명), 11~20마리 21.4%(39명), 5마리 이하 19.2%(35명) 순이었다. 돌보는 길고양이 마릿수의 평균값은 18.3마리, 중간값은 10였는데, 평균값과 중간값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50마리 이상, 많게는 수백 마리에 이르는 대규모 돌봄을 수행한다고 답한 응답이 16건에 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개수는 1~2곳과 3~5곳이 각각 30.8%(5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곳 이상 23.6%(43명), 6~9곳 14.8%(27명) 순이었다. 밥자리 개수의 평균값은 6.47, 중간값은 4로, 돌보는 길고양이 수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돌봄을 수행하는 응답으로 인하여 두 값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일주일에 1개 밥자리를 방문 관리하는 횟수는 7~9회가 53.8%(98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0회 이상 17.0%(31명), 1~3회 15.9%(29명), 4~6회 13.2%(24명) 순이었다. 밥자리당 방문 관리 횟수의 평균값은 7.5, 중위값은 7로, 밥자리당 관리하는 횟수에서는 평균값과 중위값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 중복응답



『그림2』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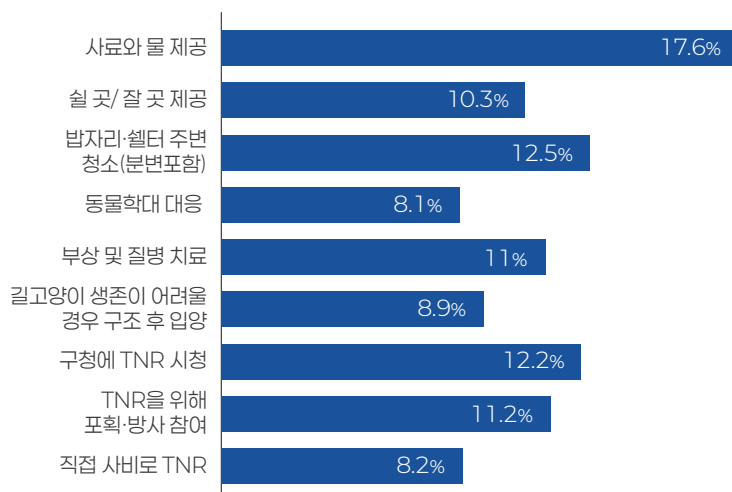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의 73% 이상은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주로 활동한다고 응답했고, 자정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벽 돌봄을 한다고 응답한 케어테이커도 17%에 달했다.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에 대한 빈도분석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돌봄 활동 시간은 오후 6시~오후 9시가 32.1%(84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오후 9시~오전 12시 18.7%(49명), 오후 3시~오후 6시 14.9%(39명), 오전 6시~오전 9시와 오전 9시~오후 12시가 각각 9.2%(24명), 오전 12시~오전 3시 6.9%(18명), 오전 3시~오전 6시 5.0%(13명), 오후 12시~오후 3시 4.2%(11명) 순이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퍼센트
오전 12시~오전 3시	18	6.9	9.9
오전 3시~오전 6시	13	5.0	7.1
오전 6시~오전 9시	24	9.2	13.2
오전 9시~오후 12시	24	9.2	13.2
오후 12시~오후 3시	11	4.2	6.0
오후 3시~오후 6시	39	14.9	21.4
오후 6시~오후 9시	84	32.1	46.2
오후 9시~오전 12시	49	18.7	26.9
합계	262	100	143.9

『표5』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시간 (n=182)

5)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중복응답



『그림3』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에 대한 빈도분석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사료와 물 제공이 17.6%(179명)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밥자리, 쉼터 주변 청소(분변 포함)가 12.5%(127명), 구청에 TNR 신청이 12.2%(124명), TNR을 위해 포획, 방사 참여가 11.2%(114명), 부상이나 질병 치료가 11.0%(112명), 실곳 / 잠자리 제공이 10.3%(105명), 길고양이 생존이 어려울 경우 구조 후 입양 보내기가 8.9%(91명), 직접 사비를 들여 TNR 시행이 8.2%(84명), 동물 학대 대응(학대 추정 사건 경찰신고 등 대응)이 8.1%(83명) 순이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퍼센트
사료와 물 제공	179	17.6	98.4
설곳 / 잘곳 제공	105	10.3	57.7
밥자리, 쉼터 주변 청소(분변 포함)	127	12.5	69.8
동물 학대 대응(학대 추정 사건 경찰신고 등 대응)	83	8.1	45.6
부상이나 질병 치료	112	11.0	61.5
길고양이 생존이 어려울 경우 구조 후 입양 보내기	91	8.9	50.0
구청에 TNR 신청	124	12.2	68.1
TNR을 위해 포획, 방사 참여	114	11.2	62.6
직접 사비를 들여 TNR 시행	84	8.2	46.2
합계	1,019	100	559.9

『표6』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n=182)

구분		사료와 물 제공	설곳 / 잘곳 제공	밥자리, 쉼터 주변 청소 (분변 포함)	동물 학대 대응(학대 추정 사건 경찰신고 등 대응)	부상이나 질병 치료	길고양이 생존이 어려울 경우 구조 후 입양 보내기	구청에 TNR 신청	TNR을 위해 포획, 방사 참여	직접 사비를 들여 TNR 시행
성별	여성	17.6%	10.2%	12.5%	8.1%	11.2%	9.0%	12.1%	11.2%	8.2%
	남성	17.3%	11.5%	11.5%	9.6%	7.7%	7.7%	13.5%	11.5%	9.6%
연령대	20대 이하	18.0%	8.0%	14.0%	8.0%	14.0%	8.0%	14.0%	12.0%	4.0%
	30대	19.2%	7.7%	12.5%	7.7%	9.6%	7.7%	14.4%	13.5%	7.7%
	40대	15.4%	10.2%	12.2%	10.6%	10.2%	9.3%	11.8%	11.0%	9.3%
	50대	17.1%	10.4%	12.8%	7.7%	10.7%	10.4%	11.4%	10.7%	8.7%
	60대	18.8%	12.7%	11.8%	6.9%	11.8%	8.2%	11.8%	10.2%	7.8%
	70대 이상	19.7%	7.9%	13.2%	6.6%	11.8%	6.6%	13.2%	13.2%	7.9%
가구 형태	1인 가구 (혼자)	15.9%	11.9%	13.9%	8.1%	10.5%	8.8%	11.5%	10.5%	8.8%
	1세대가구 (부부)	18.2%	9.1%	12.0%	8.0%	10.6%	9.1%	12.0%	11.7%	9.1%
	2세대 가구 (부모·자녀)	18.2%	10.0%	11.9%	8.0%	11.7%	8.7%	12.6%	11.4%	7.5%
	3세대 가구 및 기타	18.4%	10.5%	10.5%	10.5%	10.5%	10.5%	13.2%	10.5%	5.3%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17.5%	9.4%	12.0%	7.9%	11.5%	8.8%	12.2%	12.2%	8.5%
	월 수입의 11~30%	17.6%	10.6%	13.0%	8.8%	10.6%	8.2%	12.7%	10.9%	7.6%
	월 수입의 31~50%	16.8%	12.4%	13.9%	5.8%	10.2%	10.2%	12.4%	10.2%	8.0%
	월 수입의 50% 초과	18.4%	10.5%	10.5%	10.5%	10.5%	10.5%	9.2%	9.2%	10.5%
	외부자원으로 진행	25.0%	12.5%	12.5%	12.5%	12.5%	12.5%	12.5%	0.0%	0.0%

구분		사료와 물 제공	실곳 / 잘곳 제공	밥자리, 쉼터 주변 청소 (분변 포함)	동물 확대 대응(학대 추정 사건 경찰신고 등 대응)	부상이나 질병 치료	길고양이 생존이 어려운 경우 구조 후 입양 보내기	구청에 TNR 신청	TNR을 위해 포획, 방사 참여	직접 사비를 들여 TNR 시행
돌봄 경력	3년 이하	18.5%	10.6%	12.5%	8.8%	10.2%	8.3%	12.0%	10.2%	8.8%
	4~7년 이하	16.3%	10.3%	13.1%	7.9%	11.1%	8.3%	12.3%	13.1%	7.5%
	8~10년 이하	17.3%	11.4%	12.7%	7.5%	11.1%	8.5%	13.0%	10.7%	7.8%
	11년 이상	18.4%	8.6%	11.5%	8.6%	11.5%	10.7%	11.1%	10.7%	9.0%
돌보는 마리수	5마리 이하	17.9%	10.2%	13.3%	8.2%	10.2%	8.2%	11.7%	11.7%	8.7%
	6~10마리	17.9%	10.4%	12.9%	8.5%	10.7%	8.2%	12.6%	11.8%	6.9%
	11~20마리	17.3%	11.6%	11.6%	6.2%	12.9%	8.4%	12.9%	10.2%	8.9%
	21마리 이상	17.1%	9.0%	12.0%	9.4%	10.3%	11.1%	11.1%	10.7%	9.4%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17.7%	10.2%	13.1%	8.2%	9.2%	8.5%	11.8%	12.5%	8.9%
	3~5곳	16.9%	11.4%	12.0%	8.1%	12.3%	8.4%	11.7%	10.5%	8.4%
	6~9곳	17.1%	10.1%	12.0%	8.2%	10.8%	8.2%	13.9%	11.4%	8.2%
	10곳 이상	18.8%	8.9%	12.5%	8.0%	11.6%	10.7%	12.1%	10.3%	7.1%
방문 관리 횟수	1~3회	17.7%	10.8%	11.4%	7.6%	12.7%	8.2%	12.0%	11.4%	8.2%
	4~6회	16.7%	9.0%	11.8%	9.7%	10.4%	9.7%	11.8%	11.1%	9.7%
	7~9회	17.8%	9.9%	12.8%	7.7%	10.8%	8.6%	12.8%	11.4%	8.1%
	10회 이상	17.4%	12.2%	12.8%	8.7%	10.5%	9.9%	10.5%	10.5%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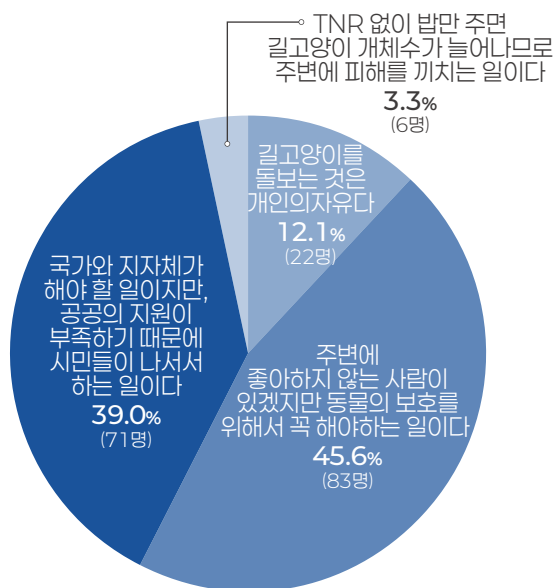
『표7』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케어테이커의 길고양이 돌봄 종류 (중복 응답)

02

설문조사 결과

02.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인식

1)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그림4』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응답이 45.6%(8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다”가 39.0%(71명),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가 12.1%(22명), 마지막으로 “TNR 없이 밥만 주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므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가 3.3%(6명)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응답이 45.6%(83명)로 가장 많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다”가 39.0%(71명)로 뒤

를 이었다. 반면 서울시 조사에서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생각에 대해 “피해를 끼치는 일”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스스로 하는 동물보호활동”(23.9%), “본인 스스로 하는 자율활동”(20.8%),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서 하는 봉사활동”(16.9%) 으로, 길고양이 돌봄의 공적 성격에 대하여 케어테이커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22	12.1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83	45.6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다	71	39.0
TNR 없이 밥만 주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므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6	3.3

『표8』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서울시 길고양이 시민의식 조사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조사	
Q. 귀하는 일부 시민들의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귀하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피해를 끼치는 일	26.4%	TNR 없이 밥만 주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므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3.3%
본인 스스로 하는 동물보호활동	23.9%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45.6%
본인 스스로 하는 자율활동	20.8%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12.1%
공공의 지원이 부족해서 하는 봉사활동	16.9%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다.	39.0%
자연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	11.5%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0%
기타	0.5%		

『표9』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서울시 시민과 케어테이커 간의 인식 비교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성별과 연령대, 지출 비용, 방문관리 횟수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길고양이 돌봄이 주변의 불호가 있더라도 동물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응답은 여성과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길고양이 돌봄이 국가와 지자체의 일이라는 응답은 남성과 30~40대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길고양이 돌봄에 지출하는 비용이 크고, 밥자리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주변의 불호가 있더라도 길고양이 돌봄은 동물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다	TNR 없이 밥만 주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므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성별	여성	11.0%	47.4%	38.2%	3.5%
	남성	33.3%	11.1%	55.6%	0.0%
연령대	20대 이하	33.3%	33.3%	33.3%	0.0%
	30대	14.3%	38.1%	42.9%	4.8%
	40대	5.1%	33.3%	53.8%	7.7%
	50대	9.6%	57.7%	32.7%	0.0%
	60대	10.9%	52.2%	34.8%	2.2%
	70대 이상	26.7%	33.3%	33.3%	6.7%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8.3%	45.8%	43.8%	2.1%
	1세대 가구(부부)	17.6%	35.3%	41.2%	5.9%
	2세대 가구(부모·자녀)	10.5%	52.6%	34.2%	2.6%
	3세대 가구 및 기타	14.3%	42.9%	42.9%	0.0%
지출 비용 (월 수입)	10% 미만	13.3%	39.8%	42.2%	4.8%
	11%~30%	11.9%	45.8%	39.0%	3.4%
	31%~50	8.3%	54.2%	37.5%	0.0%
	50% 초과	14.3%	57.1%	28.6%	0.0%
	외부자원으로 진행	0.0%	100.0%	0.0%	0.0%
돌봄 경력	3년 이하	7.5%	47.5%	45.0%	0.0%
	4~7년 이하	14.3%	45.2%	38.1%	2.4%
	8~10년 이하	18.5%	44.4%	35.2%	1.9%
	11년 이상	6.5%	45.7%	39.1%	8.7%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8.6%	31.4%	57.1%	2.9%
	6~10마리	16.4%	49.3%	28.4%	6.0%
	11~20마리	7.7%	59.0%	33.3%	0.0%
	21마리 이상	12.2%	39.0%	46.3%	2.4%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8.9%	50.0%	39.3%	1.8%
	3~5곳	12.5%	42.9%	41.1%	3.6%
	6~9곳	7.4%	48.1%	40.7%	3.7%
	10곳 이상	18.6%	41.9%	34.9%	4.7%
방문 관리 횟수	1~3회	20.7%	31.0%	48.3%	0.0%
	4~6회	12.5%	45.8%	41.7%	0.0%
	7~9회	9.2%	48.0%	38.8%	4.1%
	10회 이상	12.9%	51.6%	29.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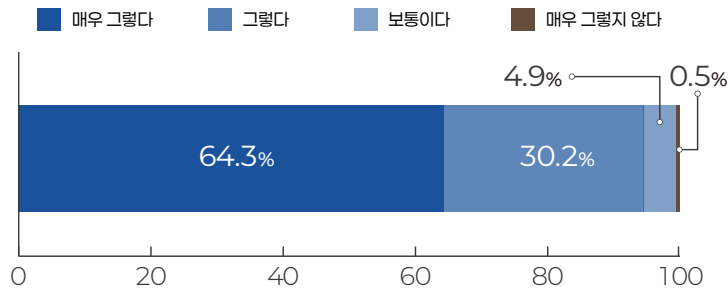
『표10』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

02

설문조사 결과

02.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인식

2)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그림4』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에 관한 생각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가 64.3%(11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그렇다”가 30.2%(55명), “보통이다”가 4.9%(9명), “매우 그렇지 않다”가 0.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길고양이 돌봄을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다	117	64.3
그렇다	55	30.2
보통이다	9	4.9
매우 그렇지 않다	1	0.5

『표11』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n=182)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체로 월 지출 비용이 클수록, 돌보는 마리수가 많을수록,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성별	여성	64.2%	30.1%	5.2%	0.6%
	남성	66.7%	33.3%	0.0%	0.0%
연령대	20대 이하	55.6%	44.4%	0.0%	0.0%
	30대	66.7%	23.8%	9.5%	0.0%
	40대	69.2%	25.6%	5.1%	0.0%
	50대	63.5%	34.6%	1.9%	0.0%
	60대	65.2%	32.6%	2.2%	0.0%
	70대 이상	53.3%	20.0%	20.0%	6.7%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62.5%	29.2%	8.3%	0.0%
	1세대 가구(부부)	60.8%	29.4%	7.8%	2.0%
	2세대 가구(부모·자녀)	67.1%	31.6%	1.3%	0.0%
	3세대 가구 및 기타	71.4%	28.6%	0.0%	0.0%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57.8%	34.9%	6.0%	1.2%
	월 수입의 11%~30%	69.5%	27.1%	3.4%	0.0%
	월 수입의 31%~50	66.7%	29.2%	4.2%	0.0%
	월 수입의 50% 초과	78.6%	14.3%	7.1%	0.0%
	외부자원으로 진행	50.0%	50.0%	0.0%	0.0%
돌봄 경력	3년 이하	65.0%	35.0%	0.0%	0.0%
	4~7년 이하	52.4%	38.1%	9.5%	0.0%
	8~10년 이하	72.2%	24.1%	3.7%	0.0%
	11년 이상	65.2%	26.1%	6.5%	2.2%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65.7%	31.4%	2.9%	0.0%
	6~10마리	56.7%	35.8%	6.0%	1.5%
	11~20마리	64.1%	30.8%	5.1%	0.0%
	21마리 이상	75.6%	19.5%	4.9%	0.0%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62.5%	32.1%	3.6%	1.8%
	3~5곳	57.1%	32.1%	10.7%	0.0%
	6~9곳	66.7%	33.3%	0.0%	0.0%
	10곳 이상	74.4%	23.3%	2.3%	0.0%
방문 관리 횟수	1~3회	65.5%	24.1%	6.9%	3.4%
	4~6회	75.0%	20.8%	4.2%	0.0%
	7~9회	64.3%	33.7%	2.0%	0.0%
	10회 이상	54.8%	32.3%	12.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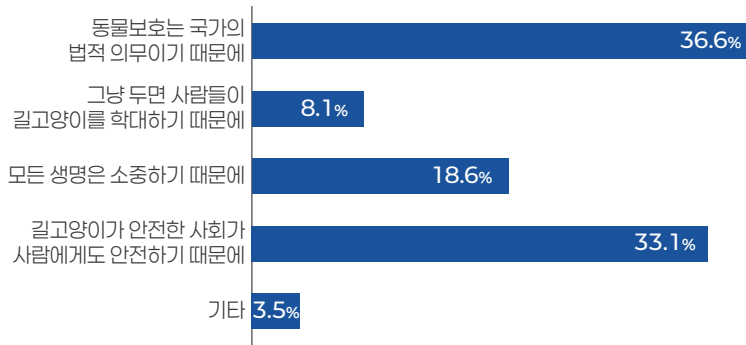
『표 1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02

설문조사 결과

02.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인식

3)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림6』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에 관한 생각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172명을 대담한 응답자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동물보호는 국가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가 36.6%(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길고양이가 안전한 사회가 사람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에”가

33.1%(57명),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가 18.6%(32명), “그냥 두면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기 때문에”가 8.1%(14명),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이 3.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주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안전성을 이유로 길고양이 돌봄을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생태계 균형과 공존, 인간의 책임과 의무 등의 내용이 있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동물보호는 국가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63	36.6
그냥 두면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기 때문에	14	8.1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32	18.6
길고양이가 안전한 사회가 사람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에	57	33.1
기타	6	3.5

『표13』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 (n=172 | 무응답 10건 제외)

4)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SD
0점	5	2.7	3.83	1.681
1점	8	4.4		
2점	22	12.1		
3점	53	29.1		
4점	23	12.6		
5점	47	25.8		
6점	12	6.6		
7점	9	4.9		
8점	3	1.6		

『표14』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n=182)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3점이 29.1%(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5점 25.8%(47명), 4점 12.6%(23명), 2점 12.1%(22명) 순으로 나타났다. 6점은 6.6%(12명), 7점은 4.9%(9명), 1점은 4.4%(8명), 0점은 2.7%(5명), 8점은 1.6%(3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응답의 평균은 3.83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6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중간 보다 낮은 수치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의견의 편차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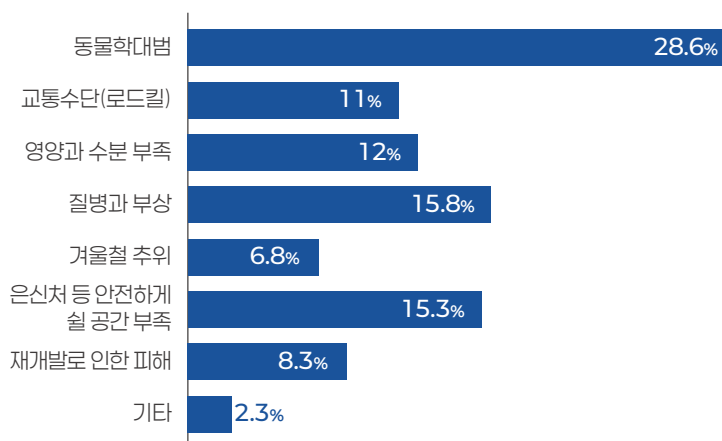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지출비용, 돌봄 경력, 돌보는 마리 수, 밥자리 개수 등의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분석한 결과,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평균 3.757(표준편차=1.656), 남성은 평균 5.222(표준편차=1.641)로 나타나, 성별 집단간에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이 우리 사회가 더 길고양이에 호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단, 이 연구에서 남성 집단의 빈도가 여성 집단의 빈도보다 현저히 낮기에, 남성 집단에 대한 표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분		N	평균	SD	Fort	p
성별	여성	173	3.757	1.656	6.699	0.010
	남성	9	5.222	1.641	6.699	0.010

『표 15』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도 차이분석 (n=182)

5)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복응답



『그림 7』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학대범이 28.6%(11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질병과 부상이 15.8%(63명), 은신처 등 안전하게 쉴 공간 부족이 15.3%(61명), 영양과 수분 부족이 12.0%(48명), 자동차 등 교통수단(로드킬)이 11.0%(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재개발로 인한 피해가 8.3%(33명), 겨울철 추위가 6.8%(27명),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이 2.3%(9명)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인위적인 위협(동물학대, 로드킬, 재개발)과 환경적 요인(질병, 부상, 은신처 부족, 영양 부족)을 길고양이의 주요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부정적 인식, 재개발/재건축 시 보호 대책 부족, 주민 갈등, 행정 및 법적 체계 미비, 동물학대범에 의한 위협이 있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퍼센트
동물학대범	114	28.6	62.6
자동차 등 교통수단(로드킬)	44	11.0	24.2
영양과 수분 부족	48	12.0	26.4
질병과 부상	63	15.8	34.6
겨울철 추위	27	6.8	14.8
은신처 등 안전하게 쉴 공간 부족	61	15.3	33.5
재개발로 인한 피해	33	8.3	18.1
기타	9	2.3	4.9
합계	399	100	

『표 16』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n=18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길고양이에게 위협적인 요소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양측 모두 동물학대범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고 응답했지만 이를 선택한 응답은 여성은 28.0%, 남성은 41.2%로 남성이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려를 더 나타내고 있었다. 2위와 3위의 빈도를 보인 응답은 여성의 경우 질병과 부상(16.2%), 안전하게 쉴 공간의 부족(15.4%)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해, 남성은 재개발로 인한 피해(17.6%)가 2위였고, 안전하게 쉴 공간의 부족(11.8%)과 로드킬(11.8%)이 공동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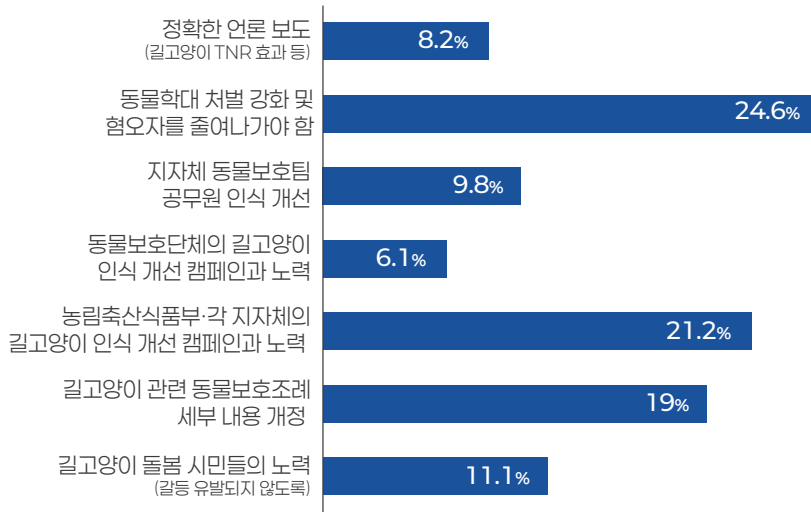
구분		동물학대범	자동차 등 교통수단(로드킬)	영양과 수분 부족	질병과 부상	겨울철 추위	은신처 등 안전하게 쉴 공간 부족	재개발로 인한 피해	기타
성별	여성	28.0%	11.0%	12.3%	16.2%	6.8%	15.4%	7.9%	2.4%
	남성	41.2%	11.8%	5.9%	5.9%	5.9%	11.8%	17.6%	0.0%
연령대	20대 이하	27.8%	5.6%	5.6%	22.2%	11.1%	11.1%	16.7%	0.0%
	30대	25.0%	15.9%	15.9%	18.2%	4.5%	9.1%	11.4%	0.0%
	40대	25.5%	11.2%	9.2%	17.3%	8.2%	18.4%	7.1%	3.1%
	50대	29.9%	12.0%	12.8%	13.7%	6.0%	13.7%	8.5%	3.4%
	60대	33.3%	6.9%	12.6%	14.9%	8.0%	14.9%	8.0%	1.1%
	70대 이상	25.7%	14.3%	14.3%	14.3%	2.9%	22.9%	2.9%	2.9%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31.3%	9.1%	7.1%	15.2%	9.1%	17.2%	10.1%	1.0%
	1세대 가구(부부)	28.8%	9.3%	11.9%	16.1%	5.1%	17.8%	6.8%	4.2%
	2세대 가구(부모·자녀)	27.8%	14.2%	14.8%	16.0%	6.8%	12.3%	6.8%	1.2%
	3세대 가구 및 기타	20.0%	5.0%	15.0%	15.0%	5.0%	15.0%	20.0%	5.0%

구분		동물 학대범	자동차 등 교통수단 (로드킬)	영양과 수분 부족	질병과 부상	겨울철 추위	은신처 등 안전하게 살 공간 부족	재개발로 인한 피해	기타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25.1%	12.0%	13.7%	14.8%	6.6%	16.9%	8.7%	2.2%
	월 수입의 11%~30%	32.3%	11.5%	8.5%	14.6%	6.9%	15.4%	8.5%	2.3%
	월 수입의 31%~50%	26.5%	8.2%	10.2%	26.5%	8.2%	14.3%	4.1%	2.0%
	월 수입의 50% 초과	40.7%	7.4%	18.5%	11.1%	3.7%	7.4%	11.1%	0.0%
	외부자원으로 진행	2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돌봄 경력	3년 이하	29.0%	10.8%	9.7%	15.1%	7.5%	18.3%	7.5%	2.2%
	4~7년 이하	25.6%	7.0%	16.3%	15.1%	10.5%	17.4%	8.1%	0.0%
	8~10년 이하	29.2%	14.2%	9.7%	19.5%	3.5%	15.0%	8.8%	0.0%
	11년 이상	29.9%	11.2%	13.1%	13.1%	6.5%	11.2%	8.4%	6.5%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23.8%	16.3%	10.0%	12.5%	7.5%	17.5%	10.0%	2.5%
	6~10마리	26.6%	9.7%	12.3%	17.5%	8.4%	15.6%	8.4%	1.3%
	11~20마리	31.1%	8.1%	16.2%	14.9%	2.7%	17.6%	5.4%	4.1%
	21마리 이상	34.1%	11.0%	9.9%	16.5%	6.6%	11.0%	8.8%	2.2%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26.6%	13.7%	10.5%	15.3%	6.5%	16.1%	9.7%	1.6%
	3~5곳	32.8%	13.4%	11.8%	14.3%	5.0%	12.6%	8.4%	1.7%
	6~9곳	25.0%	4.7%	15.6%	15.6%	10.9%	18.8%	6.3%	3.1%
	10곳 이상	28.3%	8.7%	12.0%	18.5%	6.5%	15.2%	7.6%	3.3%
방문 관리 횟수	1~3회	33.9%	9.7%	14.5%	14.5%	6.5%	11.3%	8.1%	1.6%
	4~6회	26.3%	14.0%	12.3%	12.3%	3.5%	15.8%	10.5%	5.3%
	7~9회	28.0%	11.4%	8.5%	16.1%	8.1%	18.0%	8.1%	1.9%
	10회 이상	27.5%	8.7%	20.3%	18.8%	5.8%	10.1%	7.2%	1.4%

『표 17』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

6)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응답



『그림8』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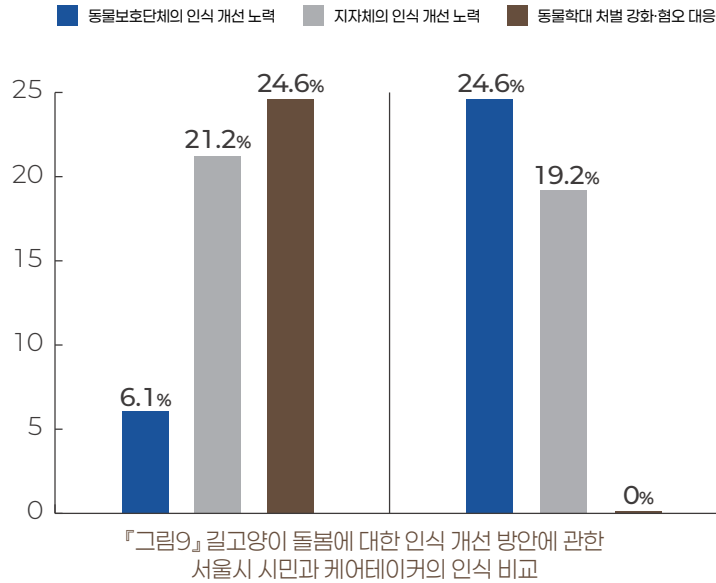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이 24.6%(9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이 21.2%(80명),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이 19.0%(72명)로 나타났다. 이어서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갈등 유발되지 않도록)”이 11.1%(42명),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이 9.8%(37명), “정확한 언론 보도(길고양이 TNR 효과 등)”가 8.2%(31명),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이 6.1%(23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은 법적 제재와 정부 차원의 노력, 그리고 제도적 개선을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퍼센트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갈등 유발되지 않도록)	42	11.1	23.1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72	19.0	39.6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80	21.2	44.0
동물보호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23	6.1	12.6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	37	9.8	20.3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	93	24.6	51.1
정확한 언론 보도(길고양이 TNR 효과 등)	31	8.2	17.0
합계	378	100	207.7

『표18』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n=182)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서울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동물보호단체의 인식개선 캠페인”(24.6%)이 “지자체의 갈등 중재”(19.2%)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은 반면, 본 연구에서 케어테이커는 “동물보호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은 6.1%,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은 21.2%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케어테이커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24.6%)으로,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학대를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서울 시민 대상 조사에서는 “동물 보호단체의 인식개선 캠페인”(24.6%)이 “지자체의 갈등 중재”(19.2%)보다 더 많은 응답을 받은 반면, 본 연구에서 케어테이커는 “동물보호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은 6.1%,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은 21.2%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케어테이커가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24.6%)으로, 케어테이커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와 학대를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길고양이 시민의식 조사		서울시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돌봄 인식 조사	
Q. 귀하는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시민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Q.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2개 선택)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의 자정노력	40.9%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 (갈등 유발되지 않도록)	11.1%
동물보호단체의 인식개선 캠페인	24.6%	동물보호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6.1%
지자체의 갈등 중재	19.2%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21.2%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	9.8%
길고양이 돌봄활동에 대한 이해와 배려	12.2%		
기타	3.1%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19.0%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	24.6%
		정확한 언론 보도(길고양이 TNR 효과 등)	8.2%

『표19』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서울시 시민과 케어테이커의 인식 비교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50대 미만에서보다 5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50대 미만에서는 어릴수록 경향성이 약해졌다. 특히 20대의 경우 모두 이 응답이 1위를 차지한 다른 나이대와 달리,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이 모두 22.2%로, 16.7%인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다른 나이대에 비하여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복지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농림축산 식품부 및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동물보호 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	정확한 언론보도 (길고양이 TNR 효과 등)
성별	여성	11.1%	18.9%	21.4%	6.1%	9.4%	24.7%	8.3%
	남성	11.1%	22.2%	16.7%	5.6%	16.7%	22.2%	5.6%
연령대	20대 이하	22.2%	22.2%	11.1%	5.6%	22.2%	16.7%	0.0%
	30대	10.9%	15.2%	28.3%	2.2%	15.2%	19.6%	8.7%
	40대	11.7%	14.3%	27.3%	6.5%	9.1%	22.1%	9.1%
	50대	9.5%	20.0%	19.0%	5.7%	9.5%	28.6%	7.6%
	60대	10.1%	23.2%	18.2%	7.1%	6.1%	26.3%	9.1%
	70대 이상	12.1%	18.2%	18.2%	9.1%	9.1%	24.2%	9.1%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12.2%	17.3%	23.5%	5.1%	10.2%	24.5%	7.1%
	1세대 가구(부부)	10.2%	20.4%	21.3%	8.3%	6.5%	23.1%	10.2%
	2세대 가구(부모·자녀)	12.0%	18.4%	19.6%	5.7%	12.0%	24.7%	7.6%
	3세대 가구 및 기타	0.0%	28.6%	21.4%	0.0%	7.1%	35.7%	7.1%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9.8%	17.8%	20.9%	4.9%	9.8%	26.4%	10.4%
	월 수입의 11~30%	9.5%	22.2%	22.2%	5.6%	12.7%	21.4%	6.3%
	월 수입의 31~50%	18.9%	13.2%	20.8%	7.5%	5.7%	26.4%	7.5%
	월 수입의 50% 초과	12.5%	21.9%	15.6%	12.5%	6.3%	25.0%	6.3%
	외부자원으로 진행	0.0%	25.0%	50.0%	0.0%	0.0%	25.0%	0.0%
돌봄 경력	3년 이하	10.0%	18.8%	21.3%	1.3%	16.3%	25.0%	7.5%
	4~7년 이하	13.3%	12.2%	22.2%	6.7%	10.0%	23.3%	12.2%
	8~10년 이하	11.7%	23.4%	20.7%	7.2%	7.2%	25.2%	4.5%
	11년 이상	9.3%	20.6%	20.6%	8.2%	7.2%	24.7%	9.3%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7.2%	17.4%	23.2%	2.9%	14.5%	24.6%	10.1%
	6~10마리	15.4%	15.4%	17.5%	7.0%	12.6%	25.2%	7.0%
	11~20마리	7.4%	22.2%	23.5%	6.2%	6.2%	24.7%	9.9%
	21마리 이상	10.6%	23.5%	23.5%	7.1%	4.7%	23.5%	7.1%

구분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농림축산 식품부 및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동물보호 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	정확한 언론보도 (길고양이 TNR 효과 등)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15.4%	12.8%	19.7%	5.1%	15.4%	23.1%	8.5%
	3~5곳	7.4%	23.1%	22.2%	6.5%	7.4%	25.9%	7.4%
	6~9곳	11.1%	20.6%	20.6%	9.5%	4.8%	23.8%	9.5%
	10곳 이상	10.0%	21.1%	22.2%	4.4%	8.9%	25.6%	7.8%
방문 관리 횟수	1~3회	7.0%	15.8%	19.3%	8.8%	15.8%	26.3%	7.0%
	4~6회	11.5%	13.5%	23.1%	5.8%	11.5%	17.3%	17.3%
	7~9회	12.7%	21.0%	21.5%	5.4%	7.8%	23.9%	7.8%
	10회 이상	9.4%	20.3%	20.3%	6.3%	9.4%	31.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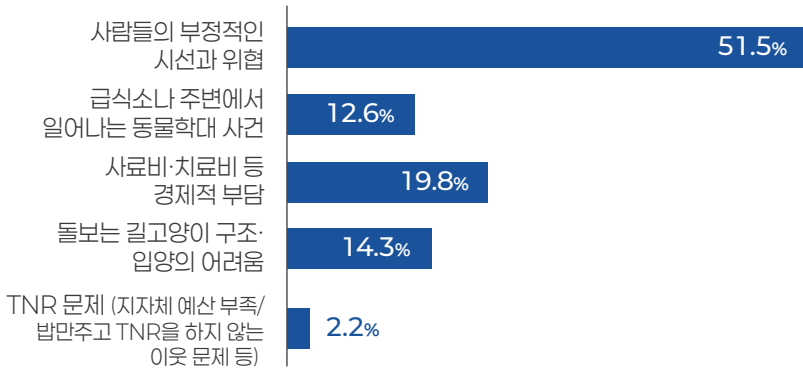
『표20』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복 응답)

02

설문조사 결과

02.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인식

7)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그림10』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위협”이 51.1%(9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사료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19.8%(36명),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의 어려움”이 14.3%(26명)로 나타났다. 이어서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

대 사건”이 12.6%(23명), 마지막으로 “TNR 문제(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밥만주고 TNR하지 않는 이웃 문제 등)”가 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위협	93	51.1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23	12.6
사료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36	19.8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의 어려움	26	14.3
TNR 문제(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밥만주고 TNR하지 않는 이웃 문제 등)	4	2.2

『표21』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n=18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모든 가구형태에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위협'을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냈지만, 특히 '1인 가구'(29.2%)와 '3세대 가구 및 기타'(28.6%)의 경우, 사료비와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1세대 가구'와 '2세대 가구'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위협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사료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의 어려움	TNR 문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밥만주고 TNR하지 않는 이웃 문제 등)
성별	여성	51.4%	12.7%	19.7%	13.9%	2.3%
	남성	44.4%	11.1%	22.2%	22.2%	0.0%
연령대	20대 이하	44.4%	22.2%	22.2%	0.0%	11.1%
	30대	38.1%	4.8%	33.3%	23.8%	0.0%
	40대	51.3%	10.3%	20.5%	12.8%	5.1%
	50대	51.9%	19.2%	17.3%	9.6%	1.9%
	60대	54.3%	8.7%	19.6%	17.4%	0.0%
	70대 이상	60.0%	13.3%	6.7%	20.0%	0.0%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47.9%	12.5%	29.2%	10.4%
1세대 가구(부부)		49.0%	15.7%	15.7%	19.6%	0.0%
2세대 가구(부모·자녀)		56.6%	9.2%	15.8%	13.2%	5.3%
3세대 가구 및 기타		28.6%	28.6%	28.6%	14.3%	0.0%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49.4%	13.3%	18.1%	15.7%	3.6%
	월 수입의 11~30%	52.5%	10.2%	23.7%	11.9%	1.7%
	월 수입의 31~50%	54.2%	8.3%	20.8%	16.7%	0.0%
	월 수입의 50% 초과	50.0%	21.4%	14.3%	14.3%	0.0%
	외부자원으로 진행	50.0%	50.0%	0.0%	0.0%	0.0%
돌봄 경력	3년 이하	50.0%	15.0%	25.0%	10.0%	0.0%
	4~7년 이하	50.0%	11.9%	16.7%	19.0%	2.4%
	8~10년 이하	50.0%	14.8%	22.2%	11.1%	1.9%
	11년 이상	54.3%	8.7%	15.2%	17.4%	4.3%

구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위협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사료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의 어려움	TNR 문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밥만주고 TNR하지 않는 이웃 문제 등)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51.4%	11.4%	22.9%	14.3%	0.0%
	6~10마리	56.7%	13.4%	19.4%	7.5%	3.0%
	11~20마리	43.6%	15.4%	20.5%	15.4%	5.1%
	21마리 이상	48.8%	9.8%	17.1%	24.4%	0.0%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44.6%	14.3%	21.4%	19.6%	0.0%
	3~5곳	58.9%	8.9%	28.6%	1.8%	1.8%
	6~9곳	48.1%	3.7%	11.1%	33.3%	3.7%
	10곳 이상	51.2%	20.9%	11.6%	11.6%	4.7%
방문 관리 횟수	1~3회	44.8%	13.8%	20.7%	17.2%	3.4%
	4~6회	37.5%	16.7%	33.3%	12.5%	0.0%
	7~9회	56.1%	11.2%	16.3%	14.3%	2.0%
	10회 이상	51.6%	12.9%	19.4%	12.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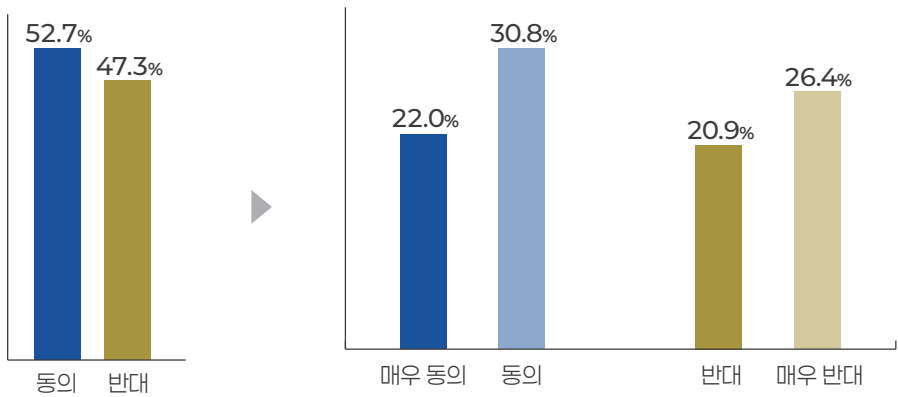
『표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돌봄에서 가장 어려운 점

02

설문조사 결과

03. 길고양이 돌봄 방식에 관한 의견

1)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림 11』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분석 결과, “동의한다”가 30.8%(5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매우 반대한다” 26.4%(48명), “매우 동의한다” 22.0%(40명), “반대한다” 20.9%(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이 52.8%로, 반대하는 의견(반대한다 + 매우 반대한다) 47.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동의한다	40	22.0
동의한다	56	30.8
반대한다	38	20.9
매우 반대한다	48	26.4

『표23』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n=18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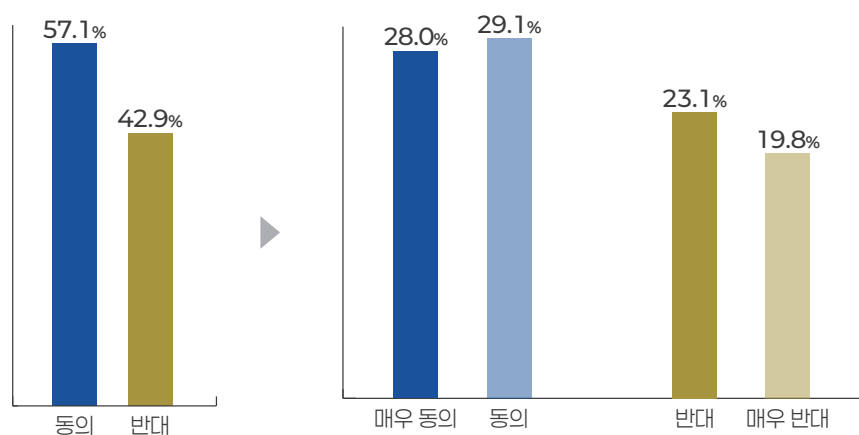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관한 인식은, 급여하는 밥자기 갯수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10곳 이상을 급여하는 케어테이커는 62.8%가 일시적 급여에 동의했으며, 10개 미만을 급여하는 케어테이커가 약 50% 가량 동의한 것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여성	22.0%	30.6%	20.8%	26.6%
	남성	22.2%	33.3%	22.2%	22.2%
연령대	20대 이하	11.1%	44.4%	22.2%	22.2%
	30대	28.6%	33.3%	14.3%	23.8%
	40대	17.9%	25.6%	28.2%	28.2%
	50대	25.0%	28.8%	23.1%	23.1%
	60대	19.6%	32.6%	17.4%	30.4%
	70대 이상	26.7%	33.3%	13.3%	26.7%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16.7%	31.3%	18.8%
1세대 가구(부부)		31.4%	39.2%	13.7%	15.7%
2세대 가구(부모·자녀)		18.4%	25.0%	28.9%	27.6%
3세대 가구 및 기타		28.6%	28.6%	0.0%	42.9%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14.5%	34.9%	24.1%	26.5%
	월 수입의 11%~30%	28.8%	25.4%	20.3%	25.4%
	월 수입의 31%~50	25.0%	29.2%	20.8%	25.0%
	월 수입의 50% 초과	28.6%	28.6%	7.1%	35.7%
	외부자원으로 진행	50.0%	50.0%	0.0%	0.0%
돌봄 경력	3년 이하	22.5%	37.5%	27.5%	12.5%
	4~7년 이하	28.6%	19.0%	23.8%	28.6%
	8~10년 이하	16.7%	38.9%	14.8%	29.6%
	11년 이상	21.7%	26.1%	19.6%	32.6%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돌보는마리 수	5마리 이하	17.1%	31.4%	28.6%	22.9%
	6~10마리	16.4%	34.3%	20.9%	28.4%
	11~20마리	23.1%	23.1%	17.9%	35.9%
	21마리 이상	34.1%	31.7%	17.1%	17.1%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17.9%	32.1%	25.0%	25.0%
	3~5곳	14.3%	33.9%	19.6%	32.1%
	6~9곳	40.7%	11.1%	18.5%	29.6%
	10곳 이상	25.6%	37.2%	18.6%	18.6%
방문 관리 횟수	1~3회	17.2%	34.5%	17.2%	31.0%
	4~6회	20.8%	25.0%	29.2%	25.0%
	7~9회	25.5%	29.6%	19.4%	25.5%
	10회 이상	16.1%	35.5%	22.6%	25.8%

『표24』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한 생각

2)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림12』 어린이 공원·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의 빈도분석 결과, “동의한다”가 29.1%(5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매우 동의한다” 28.0%(51명), “반대한다” 23.1%(42명), “매우 반대한다” 19.8%(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이 57.1로, 반대하는 의견(반대한다 + 매우 반대한다) 4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해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동의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동의할 수 있는 일이다)	51	28.0
동의한다	53	29.1
반대한다	42	23.1
매우 반대한다 (길고양이가 지낼 곳이 많지 않으므로 어린이 공원이라 할지라도 밥을 주어야 한다)	36	19.8

『표25』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생각(n=18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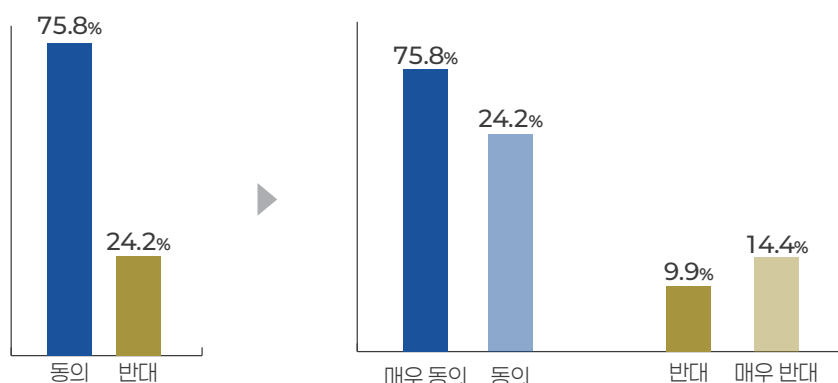
일정한 시간 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관한 인식은, 급여하는 밥자기 갯수에 따라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10곳 이상을 급여하는 케어테이커는 62.8%가 일시적 급여에 동의했으며, 10개 미만을 급여하는 케어테이커가 약 50% 가량 동의한 것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여성	27.7%	30.1%	22.0%	20.2%
	남성	33.3%	11.1%	44.4%	11.1%
연령대	20대 이하	11.1%	33.3%	33.3%	22.2%
	30대	19.0%	28.6%	28.6%	23.8%
	40대	35.9%	15.4%	30.8%	17.9%
	50대	23.1%	38.5%	19.2%	19.2%
	60대	37.0%	32.6%	15.2%	15.2%
	70대 이상	20.0%	20.0%	26.7%	33.3%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22.9%	31.3%	22.9%
1세대 가구(부부)		35.3%	29.4%	19.6%	15.7%
2세대 가구(부모자녀)		26.3%	27.6%	26.3%	19.7%
3세대 가구 및 기타		28.6%	28.6%	14.3%	28.6%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28.9%	28.9%	25.3%	16.9%
	월 수입의 11~30%	27.1%	28.8%	22.0%	22.0%
	월 수입의 31~50%	16.7%	33.3%	20.8%	29.2%
	월 수입의 50% 초과	50.0%	21.4%	14.3%	14.3%
	외부자원으로 진행	0.0%	50.0%	50.0%	0.0%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돌봄 경력	3년 이하	20.0%	40.0%	27.5%	12.5%
	4~7년 이하	31.0%	28.6%	21.4%	19.0%
	8~10년 이하	27.8%	31.5%	25.9%	14.8%
	11년 이상	32.6%	17.4%	17.4%	32.6%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25.7%	34.3%	22.9%	17.1%
	6~10마리	25.4%	34.3%	25.4%	14.9%
	11~20마리	30.8%	20.5%	15.4%	33.3%
	21마리 이상	31.7%	24.4%	26.8%	17.1%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21.4%	35.7%	26.8%	16.1%
	3~5곳	30.4%	30.4%	17.9%	21.4%
	6~9곳	33.3%	14.8%	33.3%	18.5%
	10곳 이상	30.2%	27.9%	18.6%	23.3%
방문 관리 횟수	1~3회	31.0%	27.6%	27.6%	13.8%
	4~6회	20.8%	16.7%	25.0%	37.5%
	7~9회	26.5%	28.6%	24.5%	20.4%
	10회 이상	35.5%	41.9%	12.9%	9.7%

『표26』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

3)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림13』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의 빈도분석 결과, “매우 동의한다”가 42.9%(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동의한다” 33.0%(60명), “매우 반대한다” 14.3%(26명), “반대한다” 9.9%(18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의견(매우 동의한다 + 동의한다)이 75.9%로, 반대하는 의견(반대한다 + 매우 반대한다) 24.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길고양이 사고와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케어테이커의 75.9%가 동의하여 일시적 급여(52.7%)나 어린이시설 주변 기피 급여(27.1%)에 비하여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길고양이의 안전 문제가 케어테이커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는 향후 케어테이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사안에서, 해당 문제가 길고양이 안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동의한다	78	42.9
동의한다	60	33.0
반대한다	18	9.9
매우 반대한다	26	14.3

『표27』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n=18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특히 낮은 연령대가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는데, 동의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던 50대(38.5%)에 비하여 20대는 17.1% 높은 55.6%의 동의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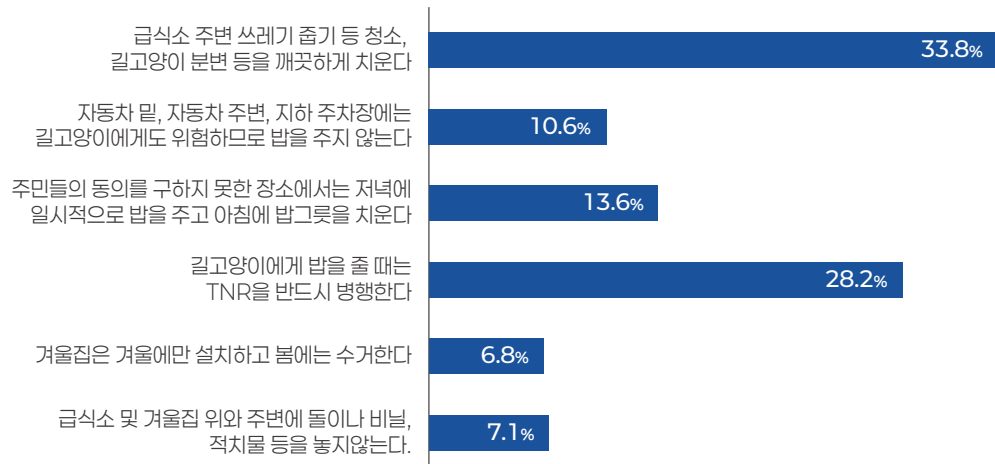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성별	여성	43.4%	33.5%	9.2%	13.9%
	남성	33.3%	22.2%	22.2%	22.2%
연령대	20대 이하	55.6%	33.3%	0.0%	11.1%
	30대	52.4%	23.8%	9.5%	14.3%
	40대	46.2%	33.3%	7.7%	12.8%
	50대	38.5%	32.7%	9.6%	19.2%
	60대	39.1%	37.0%	13.0%	10.9%
	70대 이상	40.0%	33.3%	13.3%	13.3%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가구 형태	1인 가구(혼자)	37.5%	35.4%	6.3%	20.8%
	1세대 가구(부부)	43.1%	33.3%	7.8%	15.7%
	2세대 가구(부모·자녀)	46.1%	32.9%	11.8%	9.2%
	3세대 가구 및 기타	42.9%	14.3%	28.6%	14.3%
지출 비용	월 수입의 10% 미만	42.2%	32.5%	7.2%	18.1%
	월 수입의 11~30%	40.7%	33.9%	13.6%	11.9%
	월 수입의 31~50%	50.0%	33.3%	8.3%	8.3%
	월 수입의 50% 초과	50.0%	28.6%	7.1%	14.3%
	외부자원으로 진행 (n=2)	0.0%	50.0%	50.0%	0.0%
돌봄 경력	3년 이하	40.0%	40.0%	10.0%	10.0%
	4~7년 이하	45.2%	26.2%	14.3%	14.3%
	8~10년 이하	42.6%	33.3%	7.4%	16.7%
	11년 이상	43.5%	32.6%	8.7%	15.2%
돌보는 마리 수	5마리 이하	31.4%	45.7%	2.9%	20.0%
	6~10마리	46.3%	32.8%	10.4%	10.4%
	11~20마리	38.5%	28.2%	12.8%	20.5%
	21마리 이상	51.2%	26.8%	12.2%	9.8%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구간	1~2곳	41.1%	41.1%	7.1%	10.7%
	3~5곳	32.1%	37.5%	7.1%	23.2%
	6~9곳	48.1%	22.2%	25.9%	3.7%
	10곳 이상	55.8%	23.3%	7.0%	14.0%
방문 관리 횟수	1~3회	37.9%	34.5%	6.9%	20.7%
	4~6회	33.3%	25.0%	12.5%	29.2%
	7~9회	46.9%	31.6%	11.2%	10.2%
	10회 이상	41.9%	41.9%	6.5%	9.7%

『표28』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

4)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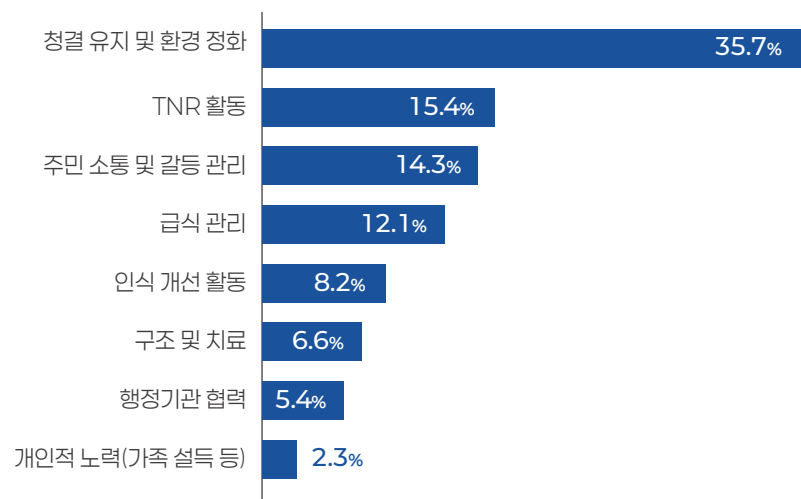
『그림 14』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케어테이커의 활동에 대한 빈도분석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급식소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청소, 길고양이 분변 등을 깨끗하게 치운다"가 33.8%(1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는 TNR을 반드시 병행한다"가 28.2%(112명)로 나타났다. 이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저녁에 일시적으로 밥을 주고 아침에 밥그릇을 치운다"가 13.6%(54명), "자동차 밑, 자동차 주변, 지하 주차장에는 길고양이에게도 위험하므로 밥을 주지 않는다"가 10.6%(42명)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급식소, 겨울집 위와 주변에 돌이나 비닐, 적치물 등을 놓지 않는다"가 7.1%(28명), "겨울집은 겨울에만 설치하고 봄에는 수거한다"가 6.8%(27명)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구분	빈도	백분율	케이스 퍼센트
급식소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청소, 길고양이 분변 등을 깨끗하게 치운다	134	33.8	73.6
자동차 밑, 자동차 주변, 지하 주차장에는 길고양이에게도 위험하므로 밥을 주지 않는다	42	10.6	23.1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저녁에 일시적으로 밥을 주고 아침에 밥그릇을 치운다	54	13.6	29.7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는 TNR을 반드시 병행한다	112	28.2	61.5
겨울집은 겨울에만 설치하고 봄에는 수거한다	27	6.8	14.8
급식소, 겨울집 위와 주변에 돌이나 비닐, 적치물 등을 놓지 않는다	28	7.1	15.4
합계	397	100	218.1

『표 29』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n=182)

5)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



『그림15』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의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한 결과, 청결 유지 및 환경 정화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급식소 주변 청소 및 분변 처리가 16.5%(30명), 쓰레기 줍기 및 주변 환경 정리가 13.7%(25명), 급식소 및 겨울집 관리가 5.5%(10명)로 나타났다. TNR 활동은 TNR 직접 수행이 9.9%(18명), TNR 홍보 및 교육이 5.5%(10명)를 차지했다. 주민 소통 및 갈등 관리에서는 주민 설득 및 대화가 6.6%(12명), 민원 대응 및 갈등 해결이 4.4%(8명), 친목 도모 및 관계 개선이 3.3%(6명)로 나타났다. 급식 관리 측면에서는 정해진 시간 급여 및 수거가 7.7%(14명), 안전한 장소 선정 및 관리가 4.4%(8명)였다. 인식 개선 활동으로는 SNS 및 지역 커뮤니티 홍보가 4.9%(9명),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배포가 3.3%(6명)를 차지했다. 구조 및 치료 활동에서는 아픈 길고양이 치료가 4.4%(8명), 구조 및 입양 연계가 2.2%(4명)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협력 부문에서는 지자체 협력 사업 추진이 2.7%(5명), 법규 및 정책 개선 요구가 1.6%(3명)였다. 후원 활동은 1.1%(2명), 개인적 노력은 2.3%(4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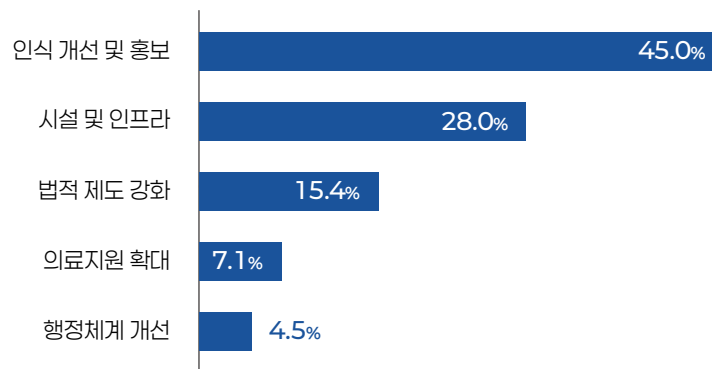
등 관리에서는 주민 설득 및 대화가 6.6%(12명), 민원 대응 및 갈등 해결이 4.4%(8명), 친목 도모 및 관계 개선이 3.3%(6명)로 나타났다. 급식 관리 측면에서는 정해진 시간 급여 및 수거가 7.7%(14명), 안전한 장소 선정 및 관리가 4.4%(8명)였다. 인식 개선 활동으로는 SNS 및 지역 커뮤니티 홍보가 4.9%(9명),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배포가 3.3%(6명)를 차지했다. 구조 및 치료 활동에서는 아픈 길고양이 치료가 4.4%(8명), 구조 및 입양 연계가 2.2%(4명)로 나타났다. 행정기관 협력 부문에서는 지자체 협력 사업 추진이 2.7%(5명), 법규 및 정책 개선 요구가 1.6%(3명)였다. 후원 활동은 1.1%(2명), 개인적 노력은 2.3%(4명)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청결 유지 및 환경 정화	급식소 주변 청소 및 분변 처리	30	16.5
	쓰레기 줍기 및 주변 환경 정리	25	13.7
	급식소 및 겨울집 관리	10	5.5
TNR 활동	TNR 직접 수행	18	9.9
	TNR 홍보 및 교육	10	5.5
주민 소통 및 갈등 관리	주민 설득 및 대화	12	6.6
	민원 대응 및 갈등 해결	8	4.4
	친목 도모 및 관계 개선	6	3.3
급식 관리	정해진 시간 급여 및 수거	14	7.7
	안전한 장소 선정 및 관리	8	4.4
인식 개선 활동	SNS 및 지역 커뮤니티 홍보	9	4.9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배포	6	3.3
구조 및 치료	아픈 길고양이 치료	8	4.4
	구조 및 입양 연계	4	2.2

구분		빈도	백분율
행정기관 협력	지자체 협력 사업 추진	5	2.7
	법규 및 정책 개선 요구	3	1.6
	후원 활동	2	1.1
개인적 노력 (가족 설득 등)		4	2.3

『표30』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 (n=182)

6)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그림 16』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했던 활동들에 관한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한 결과,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길고양이 보호 필요성 홍보가 24.7%(45명), TNR의 중요성 교육이 13.7%(25명), 생명존중 교육 확대가 6.6%(12명)로 나타났다. 시설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공공급식소 설치 확대가 15.4%(28명), 겨울집 지원이 8.2%(15명), 보호소 설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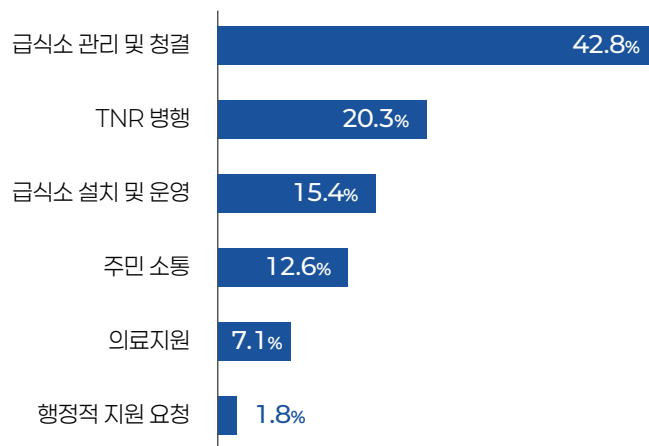
4.4%(8명)를 차지했다. 법적 제도 강화 측면에서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가 9.9%(18명), 동물보호법 개정이 5.5%(10명)로 나타났다. 의료지원 확대 영역에서는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4.4%(8명), TNR 후 관리 체계 강화가 2.7%(5명)였으며, 행정체계 개선 부문에서는 공무원 교육 강화가 2.7%(5명),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이 1.8%(3명)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인식 개선 및 홍보	길고양이 보호 필요성 홍보	45	24.7
	TNR의 중요성 교육	25	13.7
	생명존중 교육 확대	12	6.6
시설 및 인프라	공공급식소 설치 확대	28	15.4
	겨울집 지원	15	8.2
	보호소 설치	8	4.4
법적 제도 강화	동물학대 처벌 강화	18	9.9
	동물보호법 개정	10	5.5

구분		빈도	백분율
의료지원 확대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8	4.4
	TNR 후 관리 체계 강화	5	2.7
행정체계 개선	공무원 교육 강화	5	2.7
	민원 대응 체계 개선	3	1.8

『표31』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n=182)

7)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그림17』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한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한 결과, 급식소 관리 및 청결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급식소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이 19.2%(35명), 밥그릇 즉시 수거가 15.4%(28명), 쓰레기 및 분변 관리가 8.2%(15명)로 나타났다. TNR 병행과 관련해서는 TNR 필수 시행이 13.7%(25명), 개체수 조절이 6.6%(12명)를 차지했다. 급식소 설치 및 운영

측면에서는 적절한 장소 선정이 9.9%(18명), 공식 급식소 확대가 5.5%(10명)로 나타났다. 주민 소통 영역에서는 이웃과의 갈등 해소가 8.2%(15명), 인식 개선 활동이 4.4%(8명)를 차지했다. 의료지원 부문에서는 치료비 지원 요청이 4.4%(8명),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2.7%(5명)였으며, 행정적 지원 요청은 1.8%(3명)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백분율
급식소 관리 및 청결	급식소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35	19.2
	밥그릇 즉시 수거	28	15.4
	쓰레기 및 분변 관리	15	8.2
TNR 병행	TNR 필수 시행	25	13.7
	개체수 조절	12	6.6
급식소 설치 및 운영	적절한 장소 선정	18	9.9
	공식 급식소 확대	10	5.5
주민 소통	이웃과의 갈등 해소	15	8.2
	인식 개선 활동	8	4.4

구분		빈도	백분율
의료지원	치료비 지원 요청	8	4.4
	저렴한 의료서비스 제공	5	2.7
행정적 지원 요청		3	1.8

『표32』 케어테이커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한 것 (n=182)

03

2022년 길고양이 돌봄 설문 조사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

동물권행동 카라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길고양이 돌봄 활동과 TNR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파악하고, 케어테이커의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전국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1,5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효과적인 길고양이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반면, 2024년 조사는 서울시 전 자치구의 케어테이커 182명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중심 조사로, 대면 간담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활동성이 높은 케어테이커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조사는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2024년 조사는 서울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심층적 의견을 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두 조사 간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활동 내용에서는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케어테이커의 성별은 여성 비율이 95% 이상으로 압도적이었고, 연령대는 2022년 조사에서는 40대가 중심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평균 연령이 53.8세로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돌봄 활동 유형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먹이 제공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공통 인식되었고, TNR(중성화 후 방사) 참여율은 돌봄 경력 연차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개인 지출 비율이 높은 공통점이 관찰되었는데, 2022년 조사에서는 월평균 약 16만 원을, 2024년 조사에서는 월소득의 21.8%를 돌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NR과 관련해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한 개인 부담이 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돌봄 활동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혐오 문제'가 공통으로 언급되었으며, 2024년 조사에서는 특히 '부정적 시선과 위협'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한편, 돌봄의 방식과 범위에서는 양적·질적 차이가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개인 단독 활동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24년에는 TNR 신청 및 참여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졌고, 청소나 부상 치료 등 추가 돌봄 활동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NR에 대한 인식과 참여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2022년에는 TNR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지원 부족으로 참여율이 60% 수준에 머물렀던 반면, 2024년에는 TNR뿐 아니라 청결 유지가 돌봄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면서, 단순 참여율보다 돌봄 방식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정책 요구 내용도 변화했다. 2022년에는 TNR 예산 확대 요구가 중심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인식 개선과 홍보, 시설·인프라 확충 등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넘어, 공존을 위한 종합적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04 주요 결과에 대한 함의

조사 결과, 개인 케어테이커들이 감당하고 있는 길고양이 돌봄 규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11마리 이상의 길고양이를 돌보고 있으며, 그중 22.5%는 21마리 이상을 돌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식 장소(밥자리) 또한 6곳 이상이라는 응답이 38%, 10곳 이상은 23.6%에 달해, 개별 케어테이커의 돌봄 부담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은 케어테이커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90% 이상이 찬성했으며, 특히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돌보는 개체 수, 밥자리 수, 월 지출 비용이 많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3.83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는 ‘동물학대범’이 28.6%로 가장 높게 지목되었으며, 돌봄 활동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과 위협’(51.1%)이 꼽혔다. 이러한 결과는 케어테이커들이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이 돌봄 활동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물 학대가 길고양이의 생존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편견을 넘어 실질적 생명권 보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인식 개선과 함께 학대 방지 대책의 강화,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길고양이 돌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정 시간 급식 후 그릇을 회수하는 방식에 대해 52.7%가 동의했으며, 급식 장소가 많을수록 해당 방식에 대한 지지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린이 시설 등 민원이 우려되는 장소를 회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57.1%가 찬성, 42.9%가 반대하여, 케어테이커 간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지하실·지하주차장·차량 아래에서의 급식은 75.9%가 반대하며, 길고양이의 안전을 고려하는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케어테이커들이 돌봄 활동을 단순한 급여 행위가 아닌, 위생과 안전, 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고려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식 시간과 장소를 조절하는 방식에 대한 동의는, 돌봄 장소가 많아질수록 위생과 민원 문제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 회피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점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수용성을 높이려는 자율적 조정 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봄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장소에서의 급여에 대해 24.1%가 여전히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부 케어테이커들이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차량 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편, 급식소 청소 및 TNR 병행 실천율을 보면, 73.6%가 청소를 실천하고 있으며, 61.5%는 TNR을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다수의 케어테이커가 단순 급여에 그치지 않고, 환경 청결과 개체 수 조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소 미이행자(26%)와 TNR 미참여자(약 40%)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 여지가 존재한다. TNR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의 핵심 수단인 만큼, 실천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 미이행은 주민 민원과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 또는 제도적 유도 장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급식소 관리와 청결 유지가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청소 및 정리(19.2%), 밥그릇 즉시 수거(15.4%), 쓰레기·분변 관리(8.2%)가 주요 항목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TNR 필수 시행(13.7%), 개체 수 조절 강화(6.6%) 역시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길고양이 돌봄이 단순한 먹이 제공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돌봄 활동이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05

정책 제언

01. 제도적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

현재 길고양이 돌봄은 개인 케어테이커의 헌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TNR 예산의 확대와 효율적 운용을 통해 개체 수 조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집 TNR 확대 및 콜로니얼 케어 체계 도입 등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급식소의 체계적 운영 및 위생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02. 책임 있는 돌봄 문화 조성

책임 있는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케어테이커 등록제의 시범 도입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록된 케어테이커에게는 급식 방법, TNR 절차, 주민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여 길고양이 돌봄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돌봄 활동에 대한 시민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03. 정책 정착을 위한 참여 기반 마련

길고양이 돌봄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는 케어테이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표준 절차와 실천 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신고·대응 체계 강화, 공공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상당한 길고양이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04. 지역사회 협력 기반 구축

길고양이 돌봄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민간단체-주민 간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05. 실태조사 및 정책 평가 체계 마련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평가를 통해, 돌봄 활동의 변화, TNR 효과, 시민 인식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고 및 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반영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06.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접근

본 조사는 길고양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케어테이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일반 시민과 돌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인식과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때, 돌봄 정책은 더욱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공익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길고양이 돌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는 총 182명의 케어테이커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규모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전 자치구에 걸쳐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지역적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본 조사의 강점이다.

다만, 표본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케어테이커 비율이 4.9%에 불과하여, 성별 간 비교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현재 케어테이커의 실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2년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국 조사에서도 남성 응답자 비율은 4.3%에 그쳤다.

또한,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카라와 서울시가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할 만큼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케어테이커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보다 돌봄 활동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해석 시 표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응답 내용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결 유지, 주민과의 소통 노력, TNR 실천 등 항목에서 실제 행동보다 응답이 긍정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비교적 간결하게 구성되어 응답 편의를 고려하였으나, 설문조사 종료 후 일부 문항에서 아래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점이 발견되었다.

01. 설문지 설계와 문항 구성

일부 문항에서 '기타' 선택지가 제공되지 않아 다양한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유 기입형 응답 공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돌봄 시간대 문항이 범주형(예: '밤 12시~오전 3시')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연속형 변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출 항목 관련 문항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는 월 소득 대비 비율만 조사하고 있으나, 실제 지출 금액과 세부 항목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유용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항 구성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귀하는 한 달에 평균 ()원을 길고양이 돌봄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의 (%)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지출 항목별 비율을 입력해 주세요. (예: 사료비 (%), 치료비 (%), 기타 (%))”

이와 같은 방식은 지출 구조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02. 인식 질문의 구조적 한계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문항은 복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응답자의 세부적 입장이나 태도 강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찬반 여부나 5점 척도 방식으로 응답을 유도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 문항이 응답자의 생각이나 의견에 기반해 구성되어 있어, 실제 행동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제 행동 경험을 묻는 문항(예: 최근 1개월 내 TNR 시행 여부, 급식소 청소 횟수 등)을 추가하거나, 정성적 조사 또는 관찰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깊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완 사항들을 반영하면, 향후 유사 조사의 설문지 완성도와 데이터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격적인 설문 배포 전에는 전문가 검토와 함께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응답 신뢰도를 사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길고양이 돌봄 문화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길고양이 돌봄 문화 정착과 케어테이커(캣맘)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길고양이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통계 분석 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 동물권행동 카라

* 질문에 별도 설명이 없으면 답변은 1개만 선택하십시오.

1. 귀하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길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십니까? (해당 사항 모두 체크)

- | | | | |
|----------------|---------------|---------------|----------------|
| ① 오전 12시~오전 3시 | ② 오전 3시~오전 6시 | ③ 오전 6시~오전 9시 | ④ 오전 9시~오후 12시 |
| ⑤ 오후 12시~오후 3시 | ⑥ 오후 3시~오후 6시 | ⑦ 오후 6시~오후 9시 | ⑧ 오후 9시~오전 12시 |

2. 귀하가 길고양이에게 제공하는 돌봄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해당 사항 모두 체크)

- | | | |
|--------------------------------|--------------------|------------------------|
| ① 사료와 물 제공 | ② 실곳 / 잘곳 제공 | ③ 밥자리, 쉼터 주변 청소(분변 포함) |
| ④ 동물 학대 대응(학대 추정 사건 경찰신고 등 대응) | ⑤ 부상이나 질병 치료 | |
| ⑥ 길고양이 생존이 어려울 경우 구조 후 입양 보내기 | ⑦ 구청에 TNR 신청 | |
| ⑧ TNR을 위해 포획, 방사 참여 | ⑨ 직접 사비를 들여 TNR 시행 | |

길고양이 돌봄에 관한 인식

3. 귀하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①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 ② 주변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 ③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공공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다.
- ④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 ⑤ TNR 없이 밥만 주면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나므로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4. 귀하는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 (4번 문항 ①, ② 응답자만) 길고양이 돌봄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① 동물보호는 국가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 ② 그냥 두면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기 때문에 |
| ③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 ④ 길고양이가 안전한 사회가 사람에게도 안전하기 때문에 |
| ⑤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 돌봄을 원하기 때문에 | ⑥ 기타 (구체적으로 :) |

6. 우리 사회가 길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는 정도의 숫자를 골라서 체크해주세요



7. 길고양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선택)

- ① 동물학대범 ② 자동차 등 교통수단(로드킬) ③ 영양과 수분 부족 ④ 질병과 부상
⑤ 겨울철 추위 ⑥ 은신처 등 안전하게 쉴 공간 부족 ⑦ 재개발로 인한 피해 ⑧ (기타:)

8.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2개 선택)

- ① 길고양이 돌봄 시민들의 노력(갈등 유발되지 않도록) ② 길고양이 관련 동물보호조례 세부 내용 개정
③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④ 동물보호단체의 길고양이 인식 개선 캠페인과 노력
⑤ 지자체 동물보호팀 공무원 인식 개선 ⑥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혐오자를 줄여나가야 함
⑦ 정확한 언론 보도(길고양이 TNR 효과 등)

9.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가장 어려운 점 1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인가요?

- 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위협 ② 급식소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 사건
③ 사료비,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④ 돌보는 길고양이 구조, 입양의 어려움
⑤ TNR 문제(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거나 밥만주고 TNR하지 않는 이웃 문제 등)
⑥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음

길고양이 돌봄 방식에 관한 의견 *귀하의 현재 행동이 아닌, 귀하의 평소 생각과 의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0. 주민들이 공공급식소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또는 주변의 동의를 다 받지 않은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만 밥을 주고 밥그릇을 치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길고양이도 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동의한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주민 갈등이 있더라도 밥을 못 먹는 길고양이가 있을지 모르니 그릇은 절대 치울 수 없다)

11. 어린이공원, 어린이 이용 놀이터 주변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피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동의한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동의할 수 있는 일이다) ② 동의한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길고양이가 지낼 곳이 많지 않으므로 어린이 공원이라 할지라도 밥을 주어야 한다)

12. 길고양이 사고 예방 및 차량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실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차 밑에는 길고양이 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길고양이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준이다) ② 동의한다.
③ 반대한다. ④ 매우 반대한다. (밥을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3. 길고양이 돌봄 활동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케어테이커(캣맘, 캣대디)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2개 선택)

- ① 급식소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청소, 길고양이 분변 등을 깨끗하게 치운다
- ② 자동차 밑, 자동차 주변, 지하 주차장에는 길고양이에게도 위험하므로 밥을 주지 않는다
- ③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저녁에 일시적으로 밥을 주고 아침에 밥그릇을 치운다
- ④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때는 TNR을 반드시 병행한다
- ⑤ 겨울집은 겨울에만 설치하고 봄에는 수거한다
- ⑥ 급식소, 겨울집 위와 주변에 돌이나 비닐, 적치물 등을 놓지 않는다

14. “길고양이 돌봄 인식 개선을 위해 나는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1가지를 짧게 기입해주세요.

15.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짧게 서술해주세요.

16. 케어테이커(캣맘, 캣대디)의 현재 길고양이 돌봄 방식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짧게 서술해주세요.

응답자 기초사항 *통계 분석을 위한 필수 질문입니다.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생년	19__년생
가구형태	① 1인가구(혼자 거주) () ② 1세대 가구(부부만 거주) () ③ 2세대 가구(부모·자녀 거주) () ④ 3세대 가구(부모·자녀·손주 거주) () ⑤ 기타 ()
길고양이 돌봄 한달 지출 비용(개인)	① 월 수입의 10% 미만 ② 월 수입의 11 ~ 30% ③ 월 수입의 약 31 ~ 50% ④ 월 수입의 50% 초과 ⑤ 현재 정기적인 개인 수입은 없지만 내 재산으로 돌봄 ⑥ 현재 정기적인 개인 수입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구, 단체 회원 등 타인의 후원금(용돈)으로 돌봄
길고양이 돌봄 경력	_____년
돌보는 길고양이 대략적인 마릿수	총 _____마리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며 돌보는 길고양이
먹이를 급여하는 밥자리 갯수	_____개
일주일에 1개 밥자리를 방문 관리하는 횟수	_____회